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금속 경주지부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금속분회
24.08.26
**교섭
속보**
VOL.15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4.08.26.(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자본이 벼랑으로 밀면 우리는 파업으로!

지부집단교섭 파업 2주차 돌입
결품 운운하지 말고 조합원들이 승인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

지부집단교섭사업장 파업투쟁이 2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주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2시간 이상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22일(목)부터 27일(화)까지 4시간 이상 파업을 한다. 8월 28일(수)부터는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현재 미타결사업장들은 확대간부 철야 농성에 돌입하고 투쟁 계획을 살피고 있다.



세진, 금강 1차 제시안 수용, 디에스시는 수용거부

오늘 15차 지부집단교섭은 09시부터 약 한시간 세진강당에서 진행되었고. 세진, 금강, 디에스시 3개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안이 제시되었다. 세진은 두차례 조합원총회에서 의견일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세진 1차	금강 1차
기본급	시급 150원 (월 36,000원, 호봉승급 별도)	시급 20원 (호봉승급 별도)
타결/일시금	800,000원	500,000원
비 고	지급일자 소급분 : 10월 15일	지급일자 소급분 : 노사별도합의 일시금 : 12월 5일(목)
	디에스시 1차	2차
기본급	시급 250원 (호봉승급분별도)	시급 270원 (호봉승급분 별도)
타결일시금	400만원	450만원

정진홍 지부장, "양극화 구조 개선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



오늘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대표 오증석 디에스시 상무는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중 3개사업장이 타결되었다”면서 “세진은 8차례 임금 제시” 중이라며 임금인상안 제출에 대한 부담감을 밝혔다.

노측 대표 정진홍 지부장은 “세진이 어려움이 많은 곳이라 잘되길 바라는데 지난 의견접근안도 조합원 승인을 못 받았다”며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결품이 나와 안을 제출하는 사측의 벼랑 끝 교섭에 대해 “사측이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이 무거워질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정진홍 지부장은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완성차들이 합의한 내용과 다스가 제출한 안, 그리고 오늘 금강이 제출한 안이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양극화 구조가 개선되어야 자동차업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더 열심히 투쟁해 갈 것이다”고 말하면서 동종 업계내의 수직 서열화된 노동조건 현실을 개탄했다.

